

주제·작품·전시장 확장...국내외 관람객 호응

폐막 광주비엔날레 결산 <상>

지난 9월 7일 막을 올린 2018 광주비엔날레가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열린 올해 비엔날레는 43개국 165명 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을 선보였다.

11명의 큐레이터가 선보인 7개의 주제전은 지구촌의 이주와 난민, 식민, 냉전, 인터넷 격차, 젠더와 인종 등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를 더더 '견고해지'는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다. 옛 국군광주병원 등 비엔날레가 '발견'한 공간에서 만난 전시작 등 전 세계 작가들이 '광주의 역사상'을 구현한 작품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올 비엔날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7개의 주제전 풍성, '광주' 다룬 작품 호평

단일 감독제 대신 올해 처음 도입한 11명의 다수 큐레이터제를 통해 선보인 7개의 주제전은 각 큐레이터가 자신의 기획을 구현할 작가를 초청,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20여년 역사 동안 아시아의 가치와 아시아성을 탐구해온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반영, 아시아 작가의 참여가 69%로 최대를 기록했다. 2010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태국 출신 아피차pong 위라세타쿰, 호 주니엔, 실파 굽타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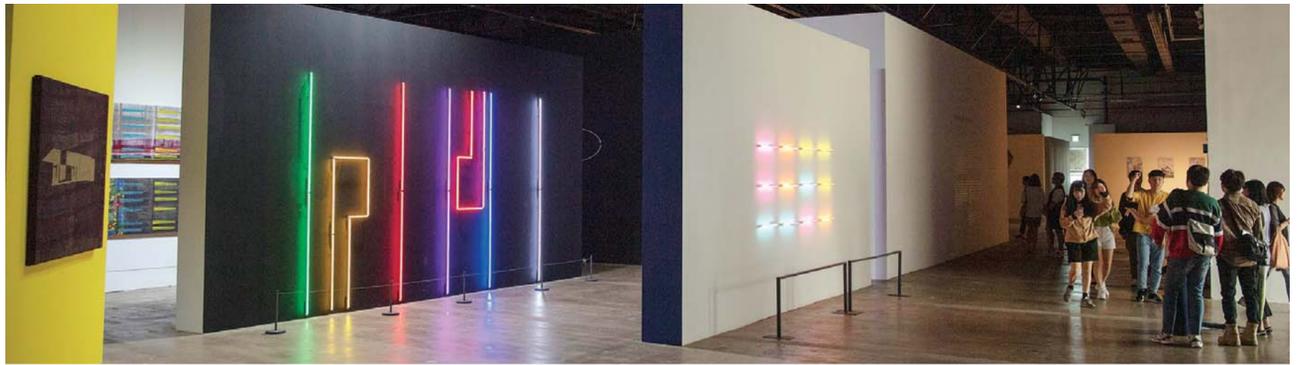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선보인 전시 가운데는 그리티아가 위유휘 섹션의 아시

11명 큐레이터 7개 주제전 비엔날레·문화전당 메인전 북한 미술·5월 작품 감동 국군광주병원·시민회관 등 도심 곳곳 전시공간 탄생

해외 문화인사 잇단 방문 전국 단체 벤치마킹 줄이어

아 이주와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산들바람이 우리 위로 지나갔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 등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발등의 불'로 떨어진 난민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했다. 4전시실의 '종말들: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참여 정치'는 무거운 주제의 작품들을 경쾌하게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영상 작품과 개념적인 작품들이 다수 포진해 자칫 지루할 수도 있었던 비엔날레 전시관과 달리 문화전당에서 만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갔다. 김만석&김성우&백종욱 기획자가 43명의 한국작가를 초청해 진행한 전시는 상대적으로 비좁은 공간임에도 작가들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다양한 장치로 전달하며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또렷이 보여줘 깊은



11일 막을 내린 2018 광주비엔날레에는 모두 31만 8000여명이 관람, 현대 미술의 향연을 즐겼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인상을 남겼다. 또 강동호·문선희·박상화·박세희·박화연·오용석·윤세영·이정록·정유승·최기창 등 10명의 지역 작가들도 참여, 다양한 지역미술의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그밖에 개막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은 집체화를 비롯해 인물화, 산수화 등 국제무대에서 생소했던 북한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겼다. 또 1995년 작 크초의 '잃어버리기 위해' 등 광주비엔날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대 전시작' 등 가운데 '상상된 경계들'주제와 어울리는 작품을 다시

소환, 관심을 환기할 점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민중항쟁을 녹여낸 작품들이 많았던 것도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특히 광주

정신의 지속가능한 역사와 담론의 시각화를 위한 신작프로젝트 'GB커미션'에 참여한 비샤르 로하스, 마이크 넬슨, 카데르 아티아, 아피차pong 위라세타쿰에 의해 새롭게 전시공간으로 탄생한 구 국군광주병원 본관 및 국광교회는 올해 행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다.

그밖에 팔레 드 도쿄, 핀란드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그램, 필리핀 컨템포러리 아티네트워킹가 광주시민회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이강하 미술관과 'Hothouse'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광주 시 전역이 현대미술의 현장으로 변신했다.

◇관람객 증가, 각계각층 발걸음 올해 비엔날레는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두 곳을 메인 전시관으로 활용하며 규모를 확장했

다. 제)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66일 간 2018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31만 8000명(11일 오후 6시 기준 잠정)으로 집계됐다. 2016광주비엔날레 관람객 26만2500명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비엔날레 전시관과 문화전당의 관람객 비율은 6대 4 정도로 비엔날레 전시관 방문객이 많았다. 국군광주병원의 경우 안전 문제 등으로 예약제로 운영됐음에도 9100여명이 관람했다. 마지막 주 주말에는 운영횟수를 늘리기도 했다.

특히 전시가 광주 전역에서 개최되면서 2018광주비엔날레를 1박 2일 코스로 감상하는 외지 관람객들을 위해 재단은 '광주로의 1박 2일 예술여행' 등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도 두드

러져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기자들 비롯해 알프 루고프 2019베니스비엔날레 감독, 에리코 오사카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대표이자 관장, 스테파니 로젠탈 2020시드니비엔날레 감독 등 국제적인 미술계 인사들이 다녀갔다. 또 부산비엔날레 관계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관계자와 청주시의원, 경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강원국제비엔날레 등에서 광주비엔날레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광주비엔날레는 동시대 최첨단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이화여대, 중앙대 등 전국 각지에서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졌고 전국의 초·중·고 생들의 방문도 계속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술상 24주년 기념 '오래된 대장간' 전



배동환 '바람과 꽃'

13~22일 은암미술관...수상작가 등 70여명 참여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인 동시에 무거운 상 중의 하나가 '광주미술상'이라고 말한다. 선배 작가들의 애정과 격려가 담겨서다.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게되고, 끊임 없는 노력을 하게하는 동기 부여도 된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미술계 원로·중진 선배 미술인들이 후배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1992년 금호미술상을 수상한 강연균 화백이 상금 500만원을 어려운 여건의 후배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게 시작이었다.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기투합한 강연균·황영성·우제길 등 선배 미술인들은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를 창립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 기금을 모아 매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시상

해오고 있다. 미술인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시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광주미술상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전시회 '오래된 대장간'이 13일~22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이사장 배동환)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수상자들 선정했던 선배 미술인들과 역대 수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남도미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미술상은 수상자 선정도 파격적이다. 신청을 받은 후 운영위원 전원이 현장에서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고 최종 3명을 선정해 프리젠테이션을 거친 후 현장 투

표를 통해 수상자를 정한다.

1회 수상자인 광주미술인공동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상을 받은 신호운 작가까지 수상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송필용·주홍·박종석·주재현·이이남·김숙빈·신창운·김진화·진시영·임남진·박소빈·이정기·박인선·윤세영 등 서양화, 한국화, 조각,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바탕으로 해외까지 발을 넓히며 미술현장의 주역이 됐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69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강숙자·강연균·김종일·문숙자·박동신·송용·우제길·오건택·장지환·조규일·진원강·최영훈·한희원·허진·황순철씨 등 선배 작가들과 역대 수상자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올해 선정하는 25회 광주미술상은 광주·전남 출신 및 5년 이상 거주로서 만 28~45세 미만 청년작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2월4일이다.

오프닝은 13일 오후 5시. 문의 062-226-6677. /김미은 기자 mekim@

음악으로 만나는 반 고흐

광주문예회관, 13일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음악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세계를 만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의 하나로 '반 고흐 음악회'를 회관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무대는 고흐를 그리며 만든 팝송과 그를 다룬 영화에 등장한 음악들로 채워진다. '반 고흐 음악회'는 김이곤이 기획한 공연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시작해 지금까지 500회 정도 진행됐다.

이번 무대는 고흐의 작품 120여 점을 함께 감상하며 쇼팽, 베토벤 등 7곡의 클래식 연주로 1시간 30분 동안 꾸며진다. 먼저 1971년 돈 맥클린에 발표된 팝송 '빈센트'로 문을 연다. 베토벤의 소나타 '비창'으로 고흐의 열정을 조명하고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



67 제4번 두개의 손',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을 들으며 그의 진정한 성과 작품의 동기를 살펴본다. 이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작품 34 제14번',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작품 780 제3번', 쇼팽의 '녹턴 작품9 제2번'을 무대에 올린다. 첼리스트 김근혜와 피아니스트 방기수가 출연한다. 전석 1만원(청소년 5000원). 문의 062-613-823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일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책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